외국기업 새만금 진입장벽 낮아진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토지용도·자금지원 방식 등 개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간소화…규제 대폭 완화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기업 진입과 카지노 설립을 더욱 쉽게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의 토지용도 구분은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 등으로 단순화된다. 종전까지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종으로 세분화돼 있어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축소·통합한 것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해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고용 관련 규정 일부 적용이 배제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해주던 방식도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빼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만 이를 다시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때 사전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과 특1등급 이상의 호텔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전북도는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북도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설 새만금지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절임배추 소금 함량 2% 미만"에 난감한 전남도

2%이상 돼야 원산지표시 의무

천일염 판매 촉진·홍보 차질

절임배추 소금함량이 전체 재료의 2% 미만이라는 분석 결과에 전남도가 난감해하고 있다.

소금 함량이 2% 이상이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품질 좋은 전남 천일염의 판매 촉진과 함께 소비자의 불신 해소에 나서려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절임 배추의 소금 함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올 하반기 김장철에 재분석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절임배추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기를 위해 목포대 천일염사업단에 소금 함량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절임배추의 평균 소금함량이 전체 재료의 1.5~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소금이 절임배추 전체 재료의 2%를 넘을 경우 원산지 표기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10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절임배추 200㎏ 가량을 수거해 목포대 천일염사업단에 분석을 의뢰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임배추의 경우 배추가 전체 재료의 98%를 초과하면 배추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배추가 전체 재료의 98% 미만이면 배추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분석 결과는 2%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치 관련 각종 논문에서는 절임배추 소금 함량이 3~4%라고 해서 업체별로 10~20㎏씩 주문해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최근 저염 식습관 영향으로 소금 사용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장철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중국산 소금으로 인해 김장을 망쳤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소금 사용량이 많아지는 올 하반기 김장철에 절임배추를 수거해 소금 함량을 재분석하는 것은 물론 고추가루처럼 소금도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자연습지로 개명

'순천만정원'과 명칭 유사해

순천시가 올 하반기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명칭을 '순천만 자연습지'로 변경할 방침이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영구 개장한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명칭이 유사해 탐방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3월 11~2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81%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새로운 명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순천만 자연습지 27% ▲순천만 습지 24% ▲순천만 24%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순천시의회와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올 하반기에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 이후 '순천만 정원'과 연계한 탐방객 분산, 올바른 습지탐방 문화 정착, 대중인식 증진을 통해 순천만을 세계적인 습지관리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유달산 꽃나들이 인파 지난 4일 '2015 꽃피는 유달산 축제'를 찾은 목포시민과 관광객들이 일주도로를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유달산으로 봄나들이 오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2일까지 계속된다. 〈목포시 제공〉

전남해양수산원 전복 종묘생산 기술교육

귀어가·청장년층 대상

전문 연구사 1대1 맞춤교육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어가, 수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전복 종묘생산 기술교육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연구사가 어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전복 양식(종묘 생산)은 인기가 높은 고소득 양식산업으로, 도시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새롭게 수산업을 창업하는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복종묘 생산에 대한 전문 이론과 양식기술 부족으로 기술지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이 희망어가를 대상으로 전문 연구사를 전복 종묘생산 현장에 파견해 1대1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과정 첫날은 산란 자극, 수정, 알 수집, 부화용기 수용 과정 등이며 2~4일째까지는 부화, 유생사육, 채묘 시기 결정, 채묘까지를 교육한다. 5~7일째에는 채묘 결과 확인을 통해 부착된 전복 개체수 확인 및 추가 채묘 여부 결정 등을 교육하며, 이후에도 어린 전복 사육관리 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특히 전복 채묘 기술은 종묘 생산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수온대별로 채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화 후부터 현장의 수온과 여건에 맞게 누구나 쉽게 채묘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채묘 시간표도 제공한다. 교육 신청 희망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544-8403)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농업기술원 농기계 순회수리·영농 컨설팅

전남도 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영농철을 앞두고 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및 영농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남도 농기원은 이를 위해 농기계 교관과 품목별 전문지도사 등 15명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9월말까지 무안군을 포함해 8개 시·군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팀은 고장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와 고장수리는 물론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및 보관관리 요령까지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한다.

전남도 농기원은 고장 농기계는 현장에서 수리해 주되, 현장에서 정비가 어려운 농기계는 생산업체와 연계해 끝까지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품목별 지도사는 영농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육상태를 진단해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등 오지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농기원 박혜량 농업교육과장은 "트랙터·경운기·이앙기·콤바인을 1대씩 보유한 농가가 농기계의 정비 점검 및 올바른 사용방법을 실천한다면 연간 300만원 정도의 영농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번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및 영농 컨설팅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 오동도 동백열차 운행시간 연장

여수시는 오동도 방파제와 음악분수 구간을 운행하는 오동도 동백열차 운행시간을 오는 10일부터 1시간 연장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시는 5월 5일까지 시범 연장 운행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동도 동백열차는 타이어식 무궤도차(4량)로 1996년 7월부터 운행했다.

현재 2대를 교대로 운행하고 있다. 탑승인원은 대당 104명이며, 운전원 1명과 안전요원 1명이 함께 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여수시는 동백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연장운행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동도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기타 전동차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백열차 매표소에 무인 자동발권기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모텔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사찰, 기도원, 요양시설 적합 보성군 문덕면 땅 2092㎡(633) 건평 874㎡(264) 은행 1억선 매도 1억 7천
- 레스토랑, 커피숍,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업잘 됨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도가능 5억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원룸 22개와 투룸 8개 건물 대지 497㎡(150) 건평 1490㎡(451) 은행 5억천 보증금 1억3천선 월 500선 수익 7억7천
- 서구 치평동 유흥업 중심건물 대지 746㎡(226)건물 4617㎡(1397) 은행 30억 보증금 4억6천 월 4600 선수익 매도 63억
- 영암군 월출산 관광지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함, 전화요망

투자 ◦ 매도 ◦ 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선 수익 8억7천
- 펜션 별장 등 적합, 나주시 산포면 790㎡(234) 1억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 신안군 증도면 슬로시티에 있는 잡종지 2248㎡(740) 3억 3천에 매입했던 물건임, 은행 1억6천 매도 2억4천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역 1117㎡(338) 전세1억2천 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물류창고 · 공장 적합 광산구 삼거동 33000㎡ (10000) 26억
- 동명동 조선대 부근 시설 좋은 고시텔 대지236㎡(71) 건평732㎡(2221) 60실 공실없음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안정적인 노후생활적합 8억 3천
- 동구 금동 상업지역 2층 주택 대지192㎡(58) 건평 193㎡ 임대 3600에 50 교환 가능 2억8천
- 남구 월산동 제일맨션 89㎡(27) 8층 매도 8400만원
- 광산구 운남동 4월 준공예정일 다세대 아파트형 74㎡(24형) 분양가 1억 8750만원 141㎡(43형) 분양가 3억 4400만원 건물 신축할 땅과 교환도 가능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답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촌동경계 매1억7천만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답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지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해남토지급매

▣산이면 구성지구
해남기업관광도시 (J-프로젝트)
토지보상계획지역내토지 650평
평당 13만원
(공시지가 1.3배 가격임)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중
1년내 70%이상 이윤실현가능
2015년 하반기 보상예정

▣문내면 석교리 관리지역
낮은 야산임 5300평
평당 2만 5천원
(폭 6m이상 현황도로 있음)
개발행위허가 가능
목포 생활권임

용도
주택, 밭, 과수원, 목장
사료/퇴비공장, 창고,
태양광(사전준비)
모두가능

문의전화 (지주직접)
010 - 7979 - 8257

工場매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기획관리지역)

·공장부지 : 대지 14,540㎡
·도 로 : 대형차량 진입 (광주간 15분대)
·매도금액 : ㎡당 300,000원
·기 타 : 부지, 건물 분할매매 등 협의가함.

건물(근래신축)

		길이 × 폭 × 높이
1동	1160㎡	(58×20×18m)
2동	1060㎡	(53×20×18m)
3동	330㎡	(관리동)

조 건

광주근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정사각 대형 부지로
차량 출입,운반용이
물품적재 등 최적조건 갖춤.

010-5059-5260

법원경매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식당촌인접 지하1층~지상4층
숙박시설 대지1,671㎡
건물 1,010㎡, 위치좋음
감정가 6억2억
최저가 6억2천, 투자적합

서구 광천동 대지273㎡
건물462㎡ 1층~4층,방15개
사거리코너 위치좋음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감정가 5억3천6백
최저가 5억3천6백

담양군 금성면 근린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요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감정가 28억 최저가 10억

북구 충효동 전1,147㎡
취가정일원 식당이주단지인접
투자적합,충효동 물건다수보유
최저가 6천5백반원

부동산재테크 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